

2021년 4월 11일, 18, 25일, 5월 2일 산돌교회 구약바이블아카데미

주제: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신앙

- 1강 코로나 19는 종말의 징조인가? 구약성경의 종말신앙-새 하늘, 새 땅 이사야 65:1-25
- 2강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사야 45:7-8, 30:18-26
- 3강 허물과 죄로 물든 피조물을 재창조시키는 재창조의 하나님 이사야 57:17, 25:1-9
- 4강 세계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미리 즐거워하는 성도들 이사야 2:1-4, 11:1-9

초청의 글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2년 차에 접어든 코비드 19 팬데믹이 초래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거룩한 남은 자들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산돌교회 구약성경 아카데미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종말신앙을 다채롭게 살펴보고 공부하는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종말은 부활, 영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상속입니다. 이번 구약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되고 갱생되기를 간구합니다.

1강 코로나 19는 종말의 징조인가? 구약성경의 종말신앙-새 하늘, 새 땅

본문: 이사야 65:1-25

첫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마침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 코로나 19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

- (1) 종말의 징조인가?
- (2) 죄악에 대한 심판인가?
- (3) 동물생태계 교란, 기후변화에 의해 초래된 자연 내적 균형잡기인가?
지구자원의 소진가능성을 깨우치시려는가?
- (4) 코비드 19팬데믹은 기독교신앙의 진면목(환난상훈, 형제사랑, 약자사랑과 부축)을 발휘할 기회인가?

소결론: 지구의 창조질서는 인간문명을 교란시킬 충분한 반격의 카드가 있음을 보여준 팬데믹

- (1) 미생물 존중 영성
- (2) 동물 몸 기생 바이러스의 인간습격-동물존중 영성
- (3) 생태계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신앙의 시대 도래
- (4) 코로나 19팬데믹은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에 돌입하시는 하나님의 일

2. 새 하늘과 새 땅을 앙망하는 건강한 종말신앙-‘거룩한 남은 자’에게 약속된 종말

-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 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10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11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려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3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으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으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으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으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있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메시지

65장은 우상숭배에 빠진 당신 패역한 백성을 징벌하시며 그 중 남은 자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 특히 17-25절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하여 새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 본문에는 하나님께 2인칭 대명사로 지적받으며 단죄당하는 “너” 혹은 “너희”와 하나님이 “나의 종들”이라

고 부르는 청중이 대조되고 있다. 전자는 우상숭배자들이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며 주류노릇 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하며 자신들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도 금지하지만 실상 우상숭배자들이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돈숭배, 부동산숭배, 아파트투기숭배 등 온갖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우상숭배이다(골 3:5).

패역한 백성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1-7절)

1-3절은 하나님의 1인칭 독백이다. 1-3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나라’와 ‘백성’이다. 1절에 나오는 ‘나라’와 2절에 나오는 ‘백성’은 동일 집단이며 3절의 ‘백성’도 1-2절의 ‘나라’와 ‘백성’과 같은 실체이다. 문맥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는 행동이 세 가지라고 말한다. 구하지 않고[샤알(šā’al)] 찾지 않고[비퀘쉬(biqqēš)]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카라 쁘셈(qārā’ bēšēm)]않는다. 샤알(šā’al)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비퀘쉬(biqqēš)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며, 카라 쁘셈(qārā’ bēšēm)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간구하는 행위이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이스라엘이 의당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행한다. 2-3절이 이스라엘이 적극 행하는 행동 두 가지를 적시한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격동시킨다. 2절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하루 종일 불렀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패역한 백성’은 암 쏘레르(‘am sôrêr)이다. 쏘레르(sôrêr)는 “패역하다,” “반역하다,” “체결된 언약이나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다”를 의미하는 싸라르(sārar) 동사의 단수능동분사이다. 이스라엘은 반역이나 패역에 익숙한 백성이다. 2절의 ‘옳지 않은 길’은 ‘선하지 않은 길’[하데레크 로-토브(hadderekh lô’-ṭôb)]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길, 선이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루 종일 부르는 상황이다.

3절은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이 암 쏘레르(‘am sôrêr), “패역하는 백성”이라고 불리는지를 예증한다. 패역한 백성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4절은 패역한 백성이 행하는 동산 제사와 벽돌 위 분향의 실상을 고발한다. 그들은 ‘무덤 사이의 은밀한 처소에서 밤새우며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와 부정한 국을 끓여 먹는다’(신 14:8; 레 11:6-8). 돼지는 굵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부정한 음식이다. 그런데 패역한 백성은 이 정결음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5절은 그들의 자아도취적인 성결 자랑을 비꼬듯이 보도한다. 무덤 사이에 앉아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로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 근처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요구한다.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기막힌 자아도취자들은 하나님을 격분시킨다. 6절은 “보라”라는 발어사로 시작한다. 이런 악행은 바벨론 포로들의 이전 조상세대가 범한 죄들로 현재의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져오는 패역행위들이다. 6절 마지막 소절은 하나님의 임박하고도 확실한 심판집행을 말한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실람티(šillāmṭi)]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실람티].” 그들의 “품”은 그들의 우상을 안은 가슴을 가리킨다. 7절은 이 가증한 종교행위가 지금 비난당하는 패역한 백성의 죄악임과 동시에 그들의 조상의 죄악임을 밝힌다. 이 패역한 백성의 조상도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여호와를 능욕하였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응이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내가 그들의 이전(먼저 번) 행위를 헤아려서’라고 바뀌어야 한다. 이전의 죄악까지 합산하여 이 패역한 백성

의 품에 보으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과 우상숭배자들의 갈라지는 행로(8-16절)

이 단락은 앞 단락의 어조와 상당히 다르다. 1-7절이 패역한 백성에 대한 신랄한 단죄와 위협적인 심판신탁이라면, 이 단락은 이사야 40-66장의 중심음조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회복, 구원과 갱신의 예언이다. 이 단락의 직접적인 “청중”인 “너희”(11, 13절)는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종들”(14-15절)과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단락의 “너희”는 앞 단락의 동산 헌제자들과 벽돌 위 분향자들과 동일한 집단이다.

8절은 남은 자(사 6:13)를 통해 당신의 기업을 상속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하나님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잠언을 인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일부 살려두실 의향을 말한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는 농민들의 잠언에 빗대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포도송이 일부를 남기시려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참조. 사 5:1-7).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시되 “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9절은 남은 자에게 기대되는 과업을 말한다.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라. 9절 하반절의 주어는 복수이다. ‘내가 택한 자들이 그것(3인칭 여성단수목적접미어)을 상속할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10절은 1-7절에 나오는 패역한 백성과 구별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소개한다. 사론 평야와 아골 골짜기 평지 모두 일급 목초지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은 앞 단락의 “나를 찾지 아니한 백성”과 대조되는 집단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패역한 백성을 “너희”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 65-6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종교적 주류세력이 된 패역한 백성’과 주류에서 밀려난 하나님의 음성을 감청하고 순종하는 소수파로 나뉘서 언급되고 있다. 주류세력은 동산 예배, 무덤 사이에서 경야(經夜-철야기도?), 돼지고기 제사, 벽돌 위 분향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제사에서 추방해 버린다(66:5-6). 이 쫓겨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다(사 66:2-5).

11-15절은 “너희”라고 불리는 65장의 청중과 하나님이 “내 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미래가 완전히 다를 것을 말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하지만 너희들은(아템)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아템)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아템)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아템)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다.”

11절은 이 신탁의 예상청중인 너희들(아템)을 단도직입적으로 야웨를 버린 자들,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린 자들, 갓(행운의 신)에게 상을 편 자들, 므니(운명의 신)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채운 자들이라고 단죄한다. 12절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분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칼에 붙여 구푸리고 죽임을 당케 하실 것이다. 그들은 65:2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13절은 이런 영적 불통에 빠진 완악한 당신의 패역백성에게 내릴 심판처분과 하나님을 찾고 부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실 구원을 각각 대조하며 말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3절은 “너희들”을 세 번이나 사용한다.

14절도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들”(아템)을 한번 사용하며 13절의 주제를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앞서처럼 “보라”는 놀라운 정도의 상황반전을 도입하는 발어사이다. 지금은 “너희들”의 전성기요 독무대일지 몰라도 곧 ‘내 종들’이 신원되고 ‘너희들이’ 몰락할 것이다. 13절에서 세 차례, 14절에 한 차례 사용된 발어사 힌네(hinnē)는 놀라운 **상황반전을 암시한다**.

‘이전까지는 내 종들이 마음이 슬프고 심령이 상했고 너희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마음의 애통으로 울부짖으며(차아크), 심령의 부서짐으로 통곡할 것이다.’

15절은 패역자들, 즉 하나님에게 “너희”라고 지칭되는 자들의 유산이 더욱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을 말한다. “너희,” ‘패역백성이 남겨 놓은 이름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겨질 것이다.’ 므니 현재자, 갓 현재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기억된다는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1인칭 대명사 아니(‘ānī)를 앞세워 패역자들을 심판하실 의지를 피력하신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2인칭 단수)를 죽이고 내 종들에 대해서는 한 다른 이름이 붙여져 불릴 것이다.’ 패역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영구적으로 분리시킨다는 말이다.

16절은 일반적 잠언인데 행운의 신 갓과 운명의 신 므니에게 제사 드린 자들을 겨냥한 잠언이다. 갓과 므니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등진 채 복을 구한 자들이다. 이들의 결국은 칼에 죽을 운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한다고 확인하신다. “진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멘(‘ēlôhîm ‘āmēn)이다.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한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쳤던 환난이 잊혀졌고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16절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화려한 부활과 영화로운 승귀를 다루는 60-62장과 희미하게 연결된다.

예루살렘에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17-25절)

이 단락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실 위로와 구원을 몽환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17절은 상황의 극전 반전을 가리키는 ‘발어사’ 힌니(“보라”)로 시작한다. 이전 상황과 다른 현실이 개시된다는 암시이다. ‘보라’의 주어가 1인칭 하나님이므로 이후에 나오는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뵘레(bôrē)의 주어도 1인칭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고 한다.’ 그것은 얼마만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창조인가? ‘첫 창조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창조이다.’ 17절은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가 이전 첫 창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강렬하게 새로운 창조사역이라는 것이다. 이 단락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상화된 예루살렘의 승귀(昇貴)와 영화화(榮華化)를 의미한다. 18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창도의 핵심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창조임을 말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의 갱신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청중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한다. 언제까지? ‘내가 창조할 때까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희락으로, 그리고 그의 거민들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때까지이다.’ 하나님이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찬 예루살렘을 희락의 화신으로, 그 거민을 즐거움의 화신으로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을 희락의 화신, 그 거민을 즐거움의

화신으로 창조하실 것인가?

19절이 대답한다.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의 희락이요 그 거민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즐거워해주시는 성읍은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해주시는 거민은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약자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는 소리이다.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소리치며 창조주 하나님께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을 고발하는 소리이다. **예루살렘의 관원은 화평(shalom)이 많고 감독은 공의(chedaka)가 많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안 생긴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사 60:17-18). 20절은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루살렘 거민의 늘어난 평균수명을 말한다. 유아 사망자가 없고, 자연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병사하거나 재난사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백세에 죽는 자를 요절한 자라고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부를 정도로 장수촌이 될 것이다.

21-23절은 그동안 예루살렘이 혹은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당한 오욕의 역사를 신원하시는 위로이다. 21절의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미 4:4; 왕상 4:25).** 21절이 말하는 구원은 소박한 농민의 꿈이 이뤄지는 공평사회이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약소민족은 집을 짓고도 빼앗기며 포도를 심고도 열매를 빼앗기는 강탈 경험에 익숙하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약탈이 없을 것이다. 22절은 21절의 다른 표현이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시는 자기의 집과 곡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무처럼 오래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은 자신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23절도 21-22절을 반복한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이 안전과 평화를 맛보면서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이야말로’ (헴마)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께 복 받은 자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4절은 예루살렘 거민과 하나님 사이의 긴밀하고 신속한 영적 소통수준을 말한다. 24절에는 하나님의 1인칭 대명사 아니(ʾānī)가 두 번씩이나 상황절을 이끈다. 그만큼 하나님 주도적인 영적 소통의지를 강조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아니(ʾānī)]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아니(ʾānī)] 들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24절은 58:9 상반절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65:1-2의 영적 불통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5절은 공평과 정의가 백퍼센트 구현된 이상향을 묘사한다. 미가서 3:9-10과 이사야 5:20이 묘사한 시온/예루살렘과 정반대의 예루살렘/시온이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미 3:9-1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려진 피들과 약자들의 희생으로 건축된 인간의 도성을 반드시 붕괴시키신다. 연약한 자들의 흘려진 피가 마르고 시온의 해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시온은 만민을 향도하고 열방을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보좌로

부상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리,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이들은 탐관오리, 압제적 군주와 관원을 가리키는 메타포이기도 하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잠 28:15). 느부갓네살은 망자존대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은 후’ 다시 제왕의 총명을 회복하기도 했다(단 5:21). 이 주제는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예언자는 초월적인 영의 격동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연인이라면 발설할 수없는 무섭고 신랄한 권력비판 담론을 주도한다. 동시에 그는 예언자 전통의 핵심사상과 메시지를 정통으로 이어받는 전통계승자이기도 하다.

결론

이사야 65장 17-25절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종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열 찬 분투이다.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창조는 묵시론적인, 역사폐기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추진되는 세계변혁 사역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창조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적 정화와 갱신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내처럼 흘러 더 이상 약자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살롬 체현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다(사 1:26-27)**.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역시 세상의 창조와 보존에 관여하신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끊어내지 못한다. 코비드 19 팬데믹은 지구와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코비드 19 통해 지구창조질서, 인간의 우상숭배적 삶을 척결하고 청소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중이다. 만약 하나님이 한 시라도 이 지구와 인간의 문명에서 눈길을 거두시면 인간은 금세 완전히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인간의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기주의와 그들의 무기력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도록 역사하였고 그들이 함께 일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도록 이끌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내면화시켜 교회부터 우상숭배자들로부터 되찾아와야 하고 교회 밖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야 한다. 어떻게? 모든 우상숭배와 돈숭배, 맘몬숭배를 배척하고 사랑, 연대심, 사회적 동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쳐야 한다. 1862년의 『레미제라블』에서 빅토르 위고도, 단 한 번의 유혈혁명으로 역사의 진보를 성큼 이루려는 사행심보다 일상생활에서 비영웅적으로 발휘되는 동정심, 애환, 이웃배려 등이 역사를 완만하게 진보시킨다고 말한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비전은 지구 탈출적인 성간 여행을 떠나는 우주신화가 아니라 세계만민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가득 찬 하나님나라로 초청하는 선교비전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 부동산 투기자들, 돈숭배주의자들은 ‘부정케 하는 음식을 즐기며 동산에서 분향하며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 소통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들은 잠시 배부를 것이나 영원히 주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의에 주리고 굶주려 애통하는 날들이 많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땅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다.